



국민의힘 동구 제1선거구

송 인 석 의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천동중학교 신설 문제, 탄력적인 교육행정 필요”



송 인 석 의원

● 송인석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1선거구 송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화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현대아울렛 대형화재로 지하공간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10월 25일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120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대표자 간담회에서 소방훈련 강화, 산소마스크 비치 등 대형화재 예방대책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개선 확인을 위하여 불시 점검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발 빠른 대책 마련으로 많은 시민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조금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화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다중이용시설 중 대규모점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대전에는 면적 기준 인동 대전시장 1,380㎡부터 대전신세계 약 8만 3,000㎡까지 62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 영업개시일자에 주목해 봤습니다.

2000년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는 26곳이며, 30여 년 동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포도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16곳이나 됩니다.

본 의원이 영업개시일에 주목한 이유는 설립연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차이가 있고, 건물의 노후화로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등 모든 재난 상황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 유사 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0개소에 대하여 연 2회 표본점검과 연 1회 전수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도 전수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다중이용시설의 구분에 따라 점검대상과 방식에 차이를 두고 실효적인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다중이용시설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도 함께 이루어져 화재 진압 및 대피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화재 대책에 대해 더 질문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다음 표에 보듯이 전통시장은 1962년, 1973년 등 영업개시일이 50년 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어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이용객 또한 많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현대화된 시장도 있을 것이고 소방시설을 보완한 시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면 건물은 계속 노후화되고 여전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8월 9일 대전중앙시장 화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점포 20개가 불에 탔고 9억 1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근 5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9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태평시장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비상소화장치로 초기진압을 하여 화재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표에서 보듯이 전통시장 화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은 점점 더 노후화될 것이고, 점점을 꾸준히 하고 소방시설을 보완한다 해도 노후화된 전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상인 개인이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전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 내 점포 수는 동구 1,214개, 중구 613개 등입니다.

이 현황은 시장형태로 된 전통시장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점가, 지하도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형태로 된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대규모가 아닌 전통시장, 시장형태가 아닌 역전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파악과 화재 안전 대책이 세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동중학교 학교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은 1990년대 이후 도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중심축이 서부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인구이동 증가는 원도심 공동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도시 변화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원도심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원도심 재생의 장애요인으로 동·서 교육격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역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원도심지역의 학교 신설, 학생 통학구역 조정 등과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투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균형을 위해 정책적 대응을 꾸준히 주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에 대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관심과 투자는 줄어들어

동부지역 학생들의 서부지역으로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동구 재개발 지역 내 중학교 신설은 지역주민들이 교육청과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동구의회에서도 구성중학교와 천동중학교 예정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1시간 이상을 원거리 통학하는 데 소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10월 23일에는 천동중학교 신설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발대식에는 천동중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염원하는 학부모,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동구청장과 시·구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구청과 추진위는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천동중 신설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천동중학교 학교용지 주변에는 1,58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얼마 전에 입주를 마쳤고, 3,463세대의 아파트와 934세대의 아파트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에 천동중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는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모든 후보들이 천동중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의 의미로 서명부에 자필 사인을 했고 선거기간 동안 천동지역에는 천동중학교 설립 현수막이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 변화와 교육감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움직임을 보면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한숨만 더욱 쌓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정만 되어 있어 학교 신설을 바라는 주민들에게 학교부지는 희망고문이 되었으며,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 신설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응답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은 동부 3·4학교군 13개 중학교에 분산 배치되어 원거리 통학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낭비는 없어야 합니다.

지역 교육환경에 맞추어 현재이자 미래인 학생들에게 가까운 거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교육환경은 변했으며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천동중학교 학교부지에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존 학교 증축으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내 타 학교로 학생 분산배치가 가능하다, 현재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선거과정에서 학교 설립에 동의하신 걸로 보면 천동지역의 염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천동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정책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 즉 수 중심의 판단은 일면 객관적이고 분명한 결과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 현장, 지역의 여건에 대한 많은 요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전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개발행위에 따라 인구이동의 증가로 인해 특정 지역, 특정 학교로의 쏠림현상 등으로 학생 수용 판단이 어려운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교육의 균형발전과 대전의 현재이자 미래인 우리 학생들의 문제만큼은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공감하신다고 생각하며, 천동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전시와 교육청이 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송인석 의원님께서서는 재래시장, 특히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방지대책, 특히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전수점검계획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보완대책, 전통시장 노후화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소규모 전통시장·역전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언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전수점검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명절연휴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 계절별·시기별 화재위험특성을 반영하여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등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부터 8월까지 다중이용시설 총 210개소, 전통시장 30개, 영화상영관 17개, 도시철도시설 24개, 의료기관 136개, 판매시설 3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179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불량이 32개로 판단되었습니다.

불량 대상 32개소는 조치명령을 26곳 했고 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를 1곳 했습니다.

또한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대피, 피난동선 확보 등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인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시기별·계절별 화재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시로 전수점검 등을 해서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도 소방특별조사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건축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경우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보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있을 시에는 현행 기준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노후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내실 있는 조사를 추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소방시설 보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노후화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한 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 전통시장은 28곳이 있고요, 상점가는 11곳, 지하상가 2곳 그리고 골목형상점가가 10곳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의 점포 수가 8,762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2017년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속보설비는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연결해서 화재가 발생할 시에 119상황실에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지기나 수신기, 속보기, 중계기 등 신규설치를 19곳 설치했고 자동적으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119상황실에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자치구와 설치업체 합동으로 매월 1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화재알림시설 정비사업을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전통시장 28곳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노후설비 결함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화재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보다 세밀하게 점검해서 보완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전통시장, 역전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가 등 시설별 세분화된 화재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장 형태가 아닌 역전지하상가, 중앙로지하상가는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 2회의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스프링클러, CCTV겸용 불꽃감지기, 소화펌프 등 정비를 했습니다.

약 9억 원을 들여서 했고요.

특정소방대상물 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전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또 중앙로지하상가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관리가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자치구 조례로 지정된 10곳의 골목형상점가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송인석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다중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화재안전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해도 조금만 느슨하고 해이해지면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화재를 통해서,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고 또 적치물이 쌓여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전통시장, 특히 다중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뿐만 아니고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세밀한 대책을 추가로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인석 의원님께서서는 가칭 천동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인근 개발 현황으로 천동3구역과 대성지구 총 4,397세대의 대단위 개발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해당 학교군 내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천동중학교 학교예정부지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학교 설립은 개발지역 해당 학교군 내 학교의 전환 가능 교실 확보와 증축 등으로도 분산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천동중학교 예정부지 학교 신설은 현 시점에서는 학교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하여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2024년 천동3구역, 대성지구 입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 학교 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군 내 학교 재배치와 학군 재검토를 통해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설립 TF도 구성하여 다양한 학교모형을 개발하는 등 내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인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